

초등학교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고찰과 대안

Consideration and Suggestions for Elementary School Music Teacher's Difficulties

이 현 수*

Hyun-su Lee

초록 본 연구는 음악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고찰하고 밝혀진 사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학교에서 12년 간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와 나눈 심층면담을 주자료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전담교사의 배정, 교사 자질, 선입견, 교사 간 인식 문제, 교사 관리자 간 문제, 교사 학생 간 문제들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음악전담교사의 실질적 근무 여건 개선, 수업 장비와 수업구성의 지원, 일반 교사들의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음악교과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나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관리자의 거시적 수업 관여, 전담교사의 수업 분위기 조성, 코티칭(co-teaching) 상황에서 협조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음악교과전담교사, 전담교사의 어려움, 교사 관계, 학생 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an alternative to the findings by examining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music subjects. In-depth interviews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worked at two schools for 12 years were used as the main material. Results, problems were considered the assignment of elementary school music teacher, individual professionalism, prejudice, between bosses, between student. As an alternative suggestion for these, improvement for practical working conditions of music teachers, support of instructional equipment and making class, development and use of lectures or training programs on the specificity for importance of music subjects to improve the prejudice of general teachers, discussed the manager's involvement in macro-level of classes, change effort music class atmosphere, homeroom teacher co-operative coaching situation was discussed.

Key words: elementary school music teacher, music teacher difficulties, teacher relationship, student relationship

*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unsu2507@naver.com

Instructor, Inje University, 197 Inge-ro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I. 서론

교과전담제도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정책적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 보완되면서 초등학교의 수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로 정착해왔다. 교과전담제는 가중되는 교사 수업의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이 하는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Kim, 2007; Yoon, 2007). 한 명의 교사가 모든 교과를 도맡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과 시스템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업의 깊이나 체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과 담당의 부담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교과는 음악교과전담교사가 수업을 지도하게 된다.

외국에서 음악교과에 대한 전담제도는 오래전부터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1900년 뉴욕을 시작으로 교과전담제가 적용되었고, 1900년과 1930년 사이에는 음악과 미술 교과에 전담교사가 배치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모든 예술교과와 체육교과에 한해서 전담교사가 수업을 한다. 일본에서는 1965년부터 담임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기초 과목을 제외한 예술교과들은 전담교사가 지도하는 체계로 변화했다(Kwon & Kim, 2017, p. 7).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부터 교과전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교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Lee, 2017). 현재까지 음악교과전담교사가 학교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몇 개의 석사 논문 연구를 제외하고는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¹⁾

초등학생이 배우는 10여 개의 교과 중에 음악은 학습의 수행이 두드러지는 교과이다.²⁾ 수업내용 안에 실천적 수행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음악교과가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유아기 때 익혔던 초보적 음악 기능이 내재화되면서 인지능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음악적 개념과 기초에 대한 이해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흥미나 재미로 음악을 대하는 수준을 넘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술적인 형태로써 지각하는 감수성이 생긴다(Kim, 2008, p. 1). 음악교과는 기본적 인지 능력을 발전시키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 갖는 예술적인 감수성을 계발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내면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음악을 체험함으로써 갖게 되는 가치들은 음악교과를 다른 과목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 교과는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 음악적 능력을

1) 2007년에 한국초등교육학회에서 이루어진 ‘교과전담제에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서 학술 토론 주제로 다루어진 이후 교과전담제는 학계에서 중심적인 주제로 논의되지 못했다.

2) 김도기(2007)에 의하면,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과는 교실수업과 동시에 실천적 수행이 증시된다고 말하고 있다.

갖춘 교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Kim, 2008, p. 56). 음악교과 전담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이 학급담임교사가 가르친 학생보다 높은 성취도를 보이기 때문이다(Kim, 2001, p. 42).³⁾ 그러나 음악교과를 전공한 교사도 음악교과를 전담으로 맡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음악교과전담교사를 지원, 선발, 배정하는 과정도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im, 2003).

학교에서 교과전담교사의 위치는 ‘보조적인 교사’ 혹은 ‘권위가 실추된 교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Kim, 2012, p. 114). 또한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악 관련 외부활동이나 수업연구에 어려움을 겪는다(Choi, 2005, p. 19).

정착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교과전담제 안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학교에 상존하고 있는가? 음악교과전담교사는 제도에 따라 음악교과를 지도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교과전담을 하게 되면 해야 할 수업의 시수를 조절 받을 수 있고, 해야 할 업무의 양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전담교사의 확보문제, 교과전담 교실 및 교육 기자재 확보문제, 처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Yoon, 2007, p. 17).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담당제 체제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가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음악전담교사가 차지하는 위치, 수업의 고충은 학생들이 하는 음악 경험과 직결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교과전담제라는 틀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음악전담교사가 다른 수업 상황에 있는 교사들과 직면하는 어려움을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장의 음악교과전담교사를 직접 만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양상과 종류를 심층적으로 면담하여 주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문제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논의한 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과전담제

교과전담제에서 전담이라는 용어는 맡게 된 일의 전부를 도맡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⁴⁾ 이 용어에 교사를 붙인 전담교사는 특정 교과를 맡아 수업하는 교사라는 의

3) 김유정(2001)은 음악교과전담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음악적 성취도를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T검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p.29를 참조.

미를 가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1960년대 초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과학의 과목에 한정하여 ‘교과전담제’를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후 1970년대에 수행 중심 교과들에 대한 실험을 거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원단체의 의견에 공감하였고, 1990년대 초반부터 예술, 체육교과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Lee, 2017). 2008년⁵⁾에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2항에는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음악·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교사의 근무부담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인원은 교육부 배정 정원 내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⁶⁾

교과전담제의 시행 초기에 있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두었다. 첫째, 학급담임제에 기초를 두고 일부 교과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 둘째, 학교 실정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시행하되 음악, 체육, 미술, 실과에 비중을 두는 것, 셋째,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실시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3학년도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 넷째,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 다섯째, 1992년에서 1996년 중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Park et al., 1993, p. 165). 교과전담 시행에 있어 음악 교과에 비중을 둔다고는 하나 실제의 환경에서 학교의 실정과 교과를 담당할 교사에 대한 고려 사항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담교사도 다음과 같은 양태로 정의될 수 있다. 여러 개의 과목을 맡지 않고, 한 교과만 맡는 형태, 한 교사가 학급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상태에서 특정 교과는 교과전담교사에게 맡기는 형태, 한 교사가 특정 교과를 지도하면서 특정 교과를 다른 학급의 교사와 교환하는 형태, 학급의 학생을 책임 지도하면서 다른 학습군을 조직하여 지도하는 형태이다(Kim, 2012).

초등학교 교사가 음악을 지도할 때 가져야 할 능력은 연주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피아노 반주 능력, 시창 능력, 합창 능력, 이론과 작곡에 관한 지식, 음악에 관한 문헌지식들이다(Rim, 2003). 그러나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능적인 성장을 위해 모든 과목을 가르치며 인간 변화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끌어야 하는 일반 교사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순이 외(Park et al., 1993)와 임미경(Rim, 2003)은 예술 교과 중 특히 음악교과가 전담제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해당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서 인용된 것이다.

5) 이 시행령은 12월 31일에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이다.

6) 이 조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배치 기준으로,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을 위해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을 정하여 초·중등 학교급별에 배포한 기준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참여한 전담교사는 38세의 여성인 PSH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⁷⁾ 연구 참여자 PSH교사의 근무 경력은 13년이며, 두 군데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첫 번째 학교에서는 7년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두 번째 학교에서는 6년째 근무하고 있는 숙련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PSH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연구 수행을 위해 2020년 2월말부터⁸⁾ 2020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구 참여자와 단독으로 만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현장 경력 3년 이상,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5명의 현장교사와 면담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업무, 전염병, 교사 개인 이유, 학교 사정으로 연구 참여자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⁹⁾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 해야 하는 연구의 사례성, 전형성의 확보와 연구 타당성을 위해 면담자 요건을 현장 근무 10년 이상 전담교사경력이 있는 교사로 상향조정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PSH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근무한 학교 수는 많지 않지만 한 학교에서 10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 둘째, 음악교과에 대한 교수 신념이 다른 교사에게 강하다는 사실이다.¹⁰⁾ 셋째, PSH교사는 담임교사의 위치와 교과전담교사로서의 위치를 모두 겪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교의 체계와 이동, 교사의 성향, 근무 형태, 각 교사들의 내부적 관계, 동료 교사 간에 관계망을 내부적 관점에서 보는 데 효과적이며 담임교사가 겪지 못했던 수업상황, 담임교사의 관점에서의 음악교과전담교사, 그리고 학교에서의 음악교과전담의 위치와 역할을 양자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비구조적 면담(informal interview)-반구조적 면담(semiformal interview)-구조적 면담(structured interview)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면담과정에서는 녹음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현장 메모하였다. 1차 면담인 비구조적 면담 분석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이에 2

7)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연구에 나오는 모든 참여자의 이름과 지명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8) 예비조사 단계

9) 연구 초기, 연구 참여자와 가진 면담에서 학교 내부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학교 외부적 사건(COVID 19)으로 인하여 불가하게 되었다.

10) 자료 코딩 과정에서 해당교사의 음악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과정, 교수법, 음악적 배경과 음악교육 철학, 음악교육 신념이 확고하다는 사실이 분석되었다.

차 면담인 반구조적 면담에서는 어려움의 종류와 내용에 관해 집중면담하였다.

각 면담에서 녹음한 내용을 전사¹¹⁾하여 자료화한 다음 자료에서 나오는 의미들을 단위별로 나누어 코드를 부여한 다음 분석하는 절차인 코딩을 하였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축을 삼아 코딩하는 방식인 축코딩(axial coding)기법을 사용하였다(Saldana, 2012).

코딩 분석에 의해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어려움은 ‘수업부담’, ‘학생관계’, ‘교사 간’, ‘관리자 간’으로 상위범주화 되었다. ‘수업부담’에서는 흥미 위주 수업 준비, 악곡 선정, 수업 업무 연계성의 중위범주가 나타났다. 흥미 위주 수업 준비는 유명한 연예인의 음악을 따와서 동기부여, 악곡 선정은 선정이 어려움, 수업 업무 연계성은 전혀 업무랑 연계 되지 않음으로 하위범주화 되었다. ‘학생관계’는 교실, 고학년, 나쁜 학생들의 중위범주로, 교실은 반마다 아이들과 기싸움, 고학년은 노래를 거의 부르지 않음, 나쁜 학생들은 노래하라고 하면 막 다른 노래를 부르고, 일부러 음정을 틀림의 하위범주화되었다. ‘교사 간’은 과목 인식, 특별실의 중위범주로 묶이고, 과목 인식은 때울 수 있다고 생각, 다른 과목 대체로, 특별실은 음악실보다 체육관으로 하위범주화되었다. ‘관리자 간’은 소통, 관심, 간섭, 욕심, 협조로 중위 범주화 되었고 소통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음, 관심은 음악에 굉장히 관심, 간섭은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을 교장 선생님이 간섭, 욕심은 교장까지 다 되셨는데도 점수를 더 따시려고, 협조는 신의를 잃어서 협조 안 함으로 각각 하위범주화되었다.

코딩 분석된 1차와 2차 면담자료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어려움은 수업부담, 학생관계, 교사 간, 관리자 간의 범주를 이루고 있었다. 3차 면담에서는 파악된 문제를 확인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면담이 진행되었다.

코딩분석에 의해 상위범주(수업부담, 학생관계, 교사 간, 관리자간) / 중위범주 / 하위범주의 순서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수업부담/흥미위주/유명한 연예인의 음악을 따와서 동기부여
- 수업부담/수업준비/노래, 감상해 봅시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 수업부담/악곡선정/사실 곡 선정이 어려운 것
- 수업부담/수업업무 연계성/ 전혀 업무랑 수업이랑 연계되지 않아
- 학생관계/교실/반마다 아이들과 기싸움
- 학생관계/교실/열두 반을 다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큰 스트레스
- 학생관계/고학년/고학년은 거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

11) 전사는 면담과정을 오디오로 녹음한 다음 반복적으로 듣고 텍스트로 변화하여 자료화하는 과정이다.

- 학생관계/나쁜 학생들/ 노래하라고 하면 막 다른 노래 불러, 음정을 일부러 틀려
- 교사 간/ 과목인식/음악은 때울 수 있다고 생각,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기
- 교사 간/ 과목인식/ 음악은 후 순위에 있을 수 밖에
- 교사 간/ 특별실/ 음악관 보다는 체육관을 증축해주세요.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해
- 관리자 간/소통/ 전혀 소통 되지 않는 분
- 관리자 간/ 관심/ 음악에 굉장히 관심
- 관리자 간/ 간섭/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을 교장선생님이 간섭
- 관리자 간/ 욕심/ 교장까지 다 되셨는데도 점수를 더 따시려고
- 관리자 간/ 협조/ 신의를 잃어서 '우리는 절대 협조 안한다.'

반구조적 질문과 구조적 질문의 유형에 관한 내용을 질문 유형/ 비구조적 질문/ 반구조적 질문/ 구조적 질문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자신/ 음악전담을 하게 된 이유/ 음악전담은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는가/ 음악 교과전담 교사가 감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동료 교사 간/ 수업 상황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와 일반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일반교사들이 음악전담교사를 보는 시선은 어떤가/일반교사가 음악전담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환경과 방해가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관리자 간/음악교과전담을 할 때 어떤 관리자가 가장 힘들었는가/수업과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인가/수업 이외의 업무에 관리자가 개입하여 어려움을 겪게 한 적은 없는가
- 교사 학생 간/학생들이 음악 전담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학생들과 수업 현상에서 겪는 갈등은 무엇인가/학교 내부의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실제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교사 학생 간/학생들이 음악 전담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학생과의 갈등은 교실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학교 내부의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실제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4. 한계점

본 연구가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는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연구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첫째, 거론되는 문제의 성격이 다른 학교의 상황과 일부 유사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러한 사건이 모든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가 속해 있는 학교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고유한 특징이 똑같은 다른 집단의 환경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면담 연구의 본 목적대로 하나의 사례가 주는 정보의 고유한 특징에 집중하면서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차이점과 시사점에 주목하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교실 현장에서의 관찰이나 학생 면담은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음악수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관찰이나 학생 면담은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학교의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연구 수행 당시 학교측과 논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였다. 셋째, 이 사례를 통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삼각 검증(triangulation)을 사용해왔다. 삼각검증은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관점, 척도, 기법, 시간, 공간, 상황, 등을 활용하거나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Jo, 2016, p. 100).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찰 자료와 연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자와 확인(checking)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타 학교의 관계자 및 이 분야의 동료 연구자, 연구 참여자와의 삼각 검증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세드먼(Seidman, 2016)과 크레스웰(Creswell, 2017)의 질문 형식을 참고하였다.¹²⁾

III. 교과 배정과 교과 선입견

PSH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음악전담교과는 교장의 지시 혹은 학년 교사들의 요구, 교과목의 중요도 등에 의해서 배정되고 있었다. 관리자의 일방적 지시는 음악교과를 담당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코딩분석에서 음악교과를 ‘할 만한 과목’으로

12) 세드먼과 크레스웰의 질문 형식을 간추리면 탐침 질문이라고 불리는 개방형 질문(open question)에서 발견된 내용을 하위로 나누는 중심 질문(central question)과 확인된 내용을 부가 질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이 방식을 반구조적 질문과 구조적 질문과 연결지어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p.209 쪽 참고.

보고 담당하려는 교사 집단과 음악교과전담교사를 원하지 않는 교사 집단이 나타났는데 후자의 집단은 음악교과를 때울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집단의 구분 기준은 교과 수업 준비, 시간, 다른 과목의 중요도와 관련되었다.

1. 교과 배정

교사가 한 교과만을 전담할 때, 교재의 연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Lee, 2017; Kim & Park, 2007).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담해야 할 수업 시수는 많아지고, 내용도 심층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교사는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음악과 같은 예술 과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수자가 겪은 전문적인 경험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과목을 수업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이 부족할 경우, 양질의 수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필요해진다. 특정 교과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교과전담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담교사의 기능적인 측면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Lee, 2017, p. 72). 결국 교과전담교사는 많은 과목의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시간을 하나의 과목에 조준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교사는 어떻게 음악전담교사로 배정되는가? 교사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는지 살펴본다면 교사의 어려움에 다가가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전담교사의 배정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PSH교사는 다음과 같이 음악교과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 1〉

연구자: 전담교사를 굳이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PSH교사: 사실은 이거는 거의 학교 관리자의 지시예요. 1번은 교장 선생님 지시고 2번은 학년의 요구... 그래서 각 학년마다 주당 시수가 있어요. 주당 5, 6학년 26시간, 그 중에서 다섯 시간 정도, 학교마다 틀려요. 어떤 학교가 6학년 맡기 싫어하면 6학년에 교과전담이 들어와 주겠다 여섯 시간 그러면 그 교사는 26시간 중에 여섯 시간을 이런 전담교사가 하니까 20시간만 수업하면 되는 거예요.

음악 전담교사를 무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능력과 음악성을 연결시키는 음악적 능력 그리고 교사 개인의 자질이 있어

야 한다(Rim, 2003, p. 237). 이러한 자질은 평소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의해서 나타난다. 교사가 어떤 과목을 전담 교과로 맡고 싶어 하는지, 평소 어떤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수업 상황에서 발휘될 전문성과 연결된다(Yoon, 2007). 그래서 교사와 교과목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교사 전문성의 출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악교과전담교사로 배치되었다. 아래 표는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과전담교사가 배정되는 조건들을 보여준다.

<Table 1> Qualification of assigned music teacher

Axial coding of transcription contents ¹³⁾			
Reasons for allocation		Transcription content	Correlation of teacher's will
Section		Administrator decision	X
Reasons for allocation	Inter-teacher understandings	Uncoordinated overlap of teaching parts	△
	the progress of classes at school	Number of subjects progress of subject Number of teachers available for classes	X
	Personal reasons for teachers	Pregnant/Chronic disease/Others	O
	Teaching career	X	△
	Gender	X	X
	Relevance of major	X	O

전국 시·도별 전담교사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교과전담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전담이 된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사정이 32.9%,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24.5%,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이 12%, 학교업무 수행을 위하여가 15%,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된 경우가 15.2%였다(Yoon, 2007, p. 31). 그런데 전담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담교과에 배정되는 상황의 심각성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심각하다고 대답한 교사가 42.5%,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 교사가 14.8%였다. 또한 교과전담에 연수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교사는 77.5%였으나 실제로 교과전담 연수 경험에 관계없이 전담을 맡

13) <Table 3>은 면담 자료를 축 코딩(axial coding)한 것이다.

고 있는 교사가 63%였다(p. 35). 이러한 결과는 전담교과를 맡는 교사와 교과목의 관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교과 선입견

전담 교과는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수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Kim & Park, 2007, p. 71).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과목 지식 부족은 전문성과 연결되고 수업 강도는 준비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음악교과전담도 그러한 방식과 다르지 않게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음악교과를 ‘할 만한 교과’로 보는 교사집단과 음악교과 전담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있는데 4, 5학년을 맡는 교사들 사이에서 음악은 ‘할 만한 교과’로 인식된다.

〈자료 2〉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만 음악을 전담으로 하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음악시간에 음악을 가르치는 거네요.

PSH교사: 그렇죠. 교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들도 부담이 되겠다.

PSH교사: 그런데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과학 실험준비를 하는 부담이나 영어 수업 준비를 하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영어나 과학을 교과전담한테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음악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악교과를 ‘할 만한 교과’로 보는 교사집단에서 음악수업은 편의적인 관점으로 인식된다. 전사 내용과 같이 과학이나 영어에 비해 음악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사들은 음악교과가 무엇을 다루는 과목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음악교과전담교사가 다른 과목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수업준비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과목에서 수업 준비의 정도는 업무의 강도와 치환되고, 음악교과가 가져야 할 고유한 특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음악교사가 교실수업에서 음악적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껏 접하지 못했던 학생 자신의 내면과 만남을 가지는 과정을 열어주면서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게 될 때 전문성은 신장된다(Hong, 2014). 수업을 통한 감동과 진실된 체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전담교사는 다른 과목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교사집단의 관점에서 그

러한 체험은 무시된다. 교사들 사이에서 과목에 대한 비교는 실제 활동으로 표면화될 때도 있다. 아래 3학년과 6학년 학년 교사들은 음악교과전담을 원하지 않는 교사집단이다.

〈자료 3〉

PSH교사: 원래는 한 학년에 음악을 온전히 주는 게 좋죠.

연구자: 네.

PSH교사: 그래서 6학년 전부 들어가거나 3학년 전부다 들어가는데 음악은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음악은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악을 온전히 다 쓰지 않고 음악과 관련된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기도 하니까요.

음악전담을 원하지 않는 교사집단은 다른 교과들에 비해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목 대체로 준비할 자료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음악수업이 부담되면 생략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악수업에 임하는 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기본 기능인 시창은 물론이고 각종 악기에 대한 교수-학습, 음악교육 심리에 대한 기본적 능력이 필요하다(Rim, 2003). 음악수업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사는 오히려 더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음악적 감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섬세한 측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비가시성을 띠는 데다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준비성과 음악성을 다루는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 제외된 음악수업은 '때울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IV. 내부적 관계의 어려움

동료 교사 간 인식에서 교사들은 다른 특별실이 음악실보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관리자 간 인식에서 관리자는 교과전담교사의 수업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전담교사는 관리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려고 했다. 교사 학생 간 인식에서 교과전담교사에게 태도가 바뀌는 학생들과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전담교사의 신념이 현실과 충돌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 동료 교사 인식

음악수업에서는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 내기의 활동이 중요하다. 소리 내기의 방식이 제약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온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다

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공간과 좋은 소리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음악수업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음악은 음악실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 과목이다. 아래는 음악실의 필요성이 고려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자료 4〉

PSH교사: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음악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어떤 거라도 만들어서 할 텐데 이게 사실은 교실을 하나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의견인데 선생님들이 “음악실보다는 체육관을 증축해 주세요.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PSH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교과마다 특성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실이 부족한 실정이라 음악실까지 특별실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의 특별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다.¹⁴⁾ 교사들은 음악교과전담교사가 음악실에서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함에 공감하지만 〈자료 4〉의 내용과 같이 다른 특별실에 대한 필요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울산광역시의 남구와 중구지역 여섯 학교에 근무하는 153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통해 음악실 구비의 여부를 조사한 최민정(Choi, 2005)¹⁵⁾의 연구에서는 음악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한 교사의 수는 21명(13.72%), 마련 중에 있다고 말한 교사는 12명(7.84%),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한 교사가 120명(78.42%)이었다. 음악실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한 교사의 비율까지 합하면 80퍼센트 이상 되는 학교의 음악실은 없었거나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특별실에서 수행될 음악전담교사의 수업을 다른 교과보다 ‘덜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에 의하면, 일반교사들 사이에는 특정 교과목의 수업에서 경중에 관해 논의하는 데 교사들 간에 긴장관계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전담교사와 음악실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자료 4〉와 같이 가장 후순위로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수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14) 음악실이 없는 경우는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특별실이 구비되어야 하는 상황적 맥락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교과전담교사와 음악교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15)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남구와 중구지역에 6개 초등학교에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16) 이 표는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운영 실태 연구’에서 권수미·김혜진(2017)의 전담교사의 수업 어려움에 대

<Table 2> Difficulties of music teachers without music classrooms

Type		Difficulties ¹⁶⁾
Instruments	Instrument accessibility	Unable to handle instruments in the textbook
	Space utilization	Unable to make sound without restriction
Singing	Area laterality	Singing-oriented classes
	Space utilization	Unable to make sound without restriction Less likely to use related programs or activities
Creation	Technology usability	Less likely to use related programs or activ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Data usability	Unable to show chords or special musical symbols to students
Etc	Area laterality	Appreciation or theory-oriented classes

학교 내에 음악실이 없으면 전담교사는 특정 악기수업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전담교사는 학생에게 온전히 돌아갈 악기를 배정해 주지 못한 채 수업준비를 해야 한다.¹⁷⁾ 또한 일반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만의 몰입을 위한 교수-학습을 구성하기 어려워진다.

<자료 5>

연구자: 음악 전담교사와 다른 과목 전담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PSH교사: 음. 실례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해서 국, 수, 사, 과, 영 다섯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자료를 다 올려야 해요. 그런데 음악은 그 칸조차 없어요. 자료를 올릴 주제의 칸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온라인으로) 준비하니까 “선생님 누가 음악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그래. 수업준비에 진뻐지마” 이러시더라고요.¹⁸⁾

<자료 5>의 전사내용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음악수업은 준비하는 칸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다른 교사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음악수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이 교과에 관해 잠재적으로 차별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고방식 안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 수업의 중요성은 배경으로 밀려

한 분석(p.13)을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17) 2020년 4월 14일에 진행된 세 번째 면담에서 참여자는 교실 수업에서는 장구 수업을 하기 위해 학생 수에 맞게 장구를 가져오지 못하여 “다섯 명이 한 조로 돌아가면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긴다고 진술했다.

18) 이 면담이 수행된 시기에는 코로나(covid-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모든 학교가 수업을 인터넷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따라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인 참여자도 수업을 만들어 온라인에 탑재하고 있었다.

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교사들 간의 관계에서는 교과목의 수업에 대한 긴장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맺던 담임교사가 교과전담교사가 되면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전담교사는 수업 결손이 일어나는 반에 대체교사로 투입 되거나, 학교의 각종 행사 연습을 하고난 짜투리 시간을 사전에 아무 예고 없이 대체 해야 되는 위치에 놓인다. 이렇게 되면 전담교사와 담임교사의 관계는 원활한 관계가 아닌 긴장 관계로 돌아서거나 거리를 두는 관계로 전환된다(Kim, 2012). 이러한 인식에서 시작되는 관계의 전환은 전담교사를 음악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라기보다는 어느 학년, 담임도 아닌 애매한 위치로 만든다.

2. 관리자 인식

자기 일에 관심을 많이 쏟는 사람은 책임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타인에게 인식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과 열정이 위계가 있는 조직으로 옮겨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부에서 하부로 관심을 너무 많이 쏟게 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이 학교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다음은 학교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인 연구 참여자가 관리자의 관심에 대한 사고를 보여준다.

〈자료 6〉

PSH교사: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참 양면인데 ①이전에 계셨던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한테 자율권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교과 수업이면 교과 수업, 학교 행사는 학교 관리자들이 최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학교 예술제라든가... 그 전 학교에서는 동요 예술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담임이나 음악 전담이 할 게 크게 없고 나는 내 수업만 하면 되는데 ②이번에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음악에 관심이 많으세요. 음악을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을 교장 선생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중략) 아니 너무 선생님들을 달달북고 (수업에) 침범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느 교사가 마음을 열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뜻이 좋아도 다 마음을 닫아요.

학교조직문화적 측면에서,¹⁹⁾ 학교 체계는 교장>교감>부장교사>일반(담임)교사>전담교사>기간제교사로 위계화된다. 이 위계는 촘촘한 조직망을 가진 기업에 비해 단순한

19) 이 용어는 강경석·정우영(2006: p.415)이 학교조직문화와 교사효능감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편이다. 관리자는 각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교사에게 학교 행사, 학교 운영, 교수-학습, 학생 관리에 관한 전달 사항을 하달하고 지시를 받은 교사는 실행에 옮긴다. 학교는 체계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경직된 수직적 구조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구조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의사를 표명하고 수업에 가지는 결정권의 여하에 따라 유연해질 수도 있다(Kang & Jung, 2006, p. 403).

〈자료 6〉의 두 학교에서 겪은 관리자에 대한 경험을 대조하고 있는 PSH교사의 면담에서 ①은 수직적 구조상에서의 느슨한 관리자의 모습이고 ②는 간섭적인 관리자의 모습이다. 학교 조직의 유동적 움직임은 관리자와 음악교과전담교사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PSH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①에서는 교내 행사를 관리자가 책임졌기 때문에 전담교사는 음악수업에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음악수업에 충실하였다. 수직적 구조에서 최상부가 부여하는 ‘적절한 유동성’은 하부에 위치한 교과전담교사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권을 보호해주는 조직 ‘몰입효과’가 나타난다(Kang & Jung, 2006). 그러나 ②에서는 이전과는 반대로 최상부에 있는 관리자가 음악수업에 “사사건건”, 수업에 “침범”을 하고 있다. 최상부가 하부에 ‘과도한 관심’을 개입하고 있을 때 전담교사는 수업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인식한다.

〈자료 7〉

PSH교사: 저는 사실은 되게 꿈같은 이야기인데 교장 선생님 생각도 그래요. 학교 전체가 그냥 음악 속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를 꿈꾸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은 워낙 선생님들의 신의를 잃어서 ‘우린 절대 협조 안 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관리자가 음악교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교사를 설득하거나 지시하더라도 교사가 간섭으로 인식하면 수직적 구조는 경직된다. 수업권이 침해받았다고 인식한 전담교사는 교육 기조에 협조를 하지 않게 되고 호의적인 의도를 가진 관리자의 음악교육적 지향도 흔들리게 된다.

<Table 3> Supervisor's music class intervention

Section	Principal's area of interest	Inherent rights	
Music class	Specify the instrument or singing style	Right of self-regulation in class	Mutual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and supervisors
Participation in various competitions	Music class competition Aiming for prize	Event choice	

Section	Principal's area of interest	Inherent rights
The musical aims of a school		
The musical aims of a school	Experience and be exposed to music	Learning objective orientation

3. 교사 학생 간 인식

학생 간의 관계에서 전담교사가 가지는 어려움 중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음악 전담 교사를 대하는 태도의 다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며 두 번째는 학생의 매체 노출 때문에 학교 교실수업에 흥미를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음악수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어려움이다. 아래는 첫 번째 어려움이다.

〈자료 8〉

PSH교사: 애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의 시선이 담임선생님을 대할 때랑 전담 선생님을 대할 때랑은 분명히 (달라요) 작년에 내가 재내들 담임이었는데 전담으로 오면 선생님처럼 대하지 않아요. 학교에 강사가 많잖아요. 국악강사도 들어오고 체육 스포츠 강사도 들어오고, 그 다음 연극 강사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인지 강사인지도 모르고 애들이 태도가 불성실하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학년 담임이었다가 3학년 음악을 들어가니까 교사들끼리는 괜찮아요. ‘작년에 나랑 같이 했던 선생님이야.’ 그런데 부장업무를 받으면 반드시 교과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천 원치 않은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시선이죠. 아이들은 전담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처럼 안 봐요. 마치 대학 강사로 와서 그냥.

〈자료 8〉에서 연구 참여자는 일반 교사와 전담교사인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주길 원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교과전담교사를 외부 강사를 대하듯이 대하는 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이전에 담임을 했던 교사한테도 음악교과전담교사가 되어 음악을 가르치러 교실에 오면 산만해지거나 떠들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선생님인지 강사인지”도 모른다는 진술은 학생들의 시각에서도 교사 간 충위를 나누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교과전담교사가 외부강사보다도 높은 충위라고 보고 있는 참여자의 관점에서는 수업 상황에서 전담교사를 외부강사와 같은 위계로 대하는 학생들과 음악수업을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교과전담교사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갖는 시간이 적은 만큼 학생들에게 신뢰·매

력·카리스마·지도력·권위가 떨어진다(Kim, 2012). 주지교과도 아닌 음악교과를 담당하는 전담교사와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장악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학생들은 막 대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는 매체의 영향으로 제재곡을 가르칠 때 겪는 어려움이다.

〈자료 9〉

연구자: 학생들이 음악 전담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PSH교사: 중요한 거는 음악교과서 자체가 동요잖아요. 요즘 동요부르는 애가 아무도 없거든요. 동요에서 뭐 너무나 케이팝이나 힙합, 이런 것들 미스트로트... 이런 것들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교양이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가곡들이 담겨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음악적인 개념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요. 아이들.

전담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교양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음악에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음악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 참여자의 음악적 신념이 교실에서 실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담교사는 흥미저하의 원인을 매체로 지목하고 있다.

저학년들은 수업에 별다른 동기부여를 없이도 수업 집중이 가능한데 고학년이 되면서 음악수업에 흥미가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ee, 2015). 12, 13세의 초등학교 고학년기 아동들은 신체가 월등하게 성장하며, 성적 조속성을 드러낸다. 또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수집도 강해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감성적 변화를 친구들과 강하게 공유한다. 이 시기에 또래 문화가 형성된다(Song, 2007). 또래 문화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매체'이다. 매체는 대량의 정보를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시청자에게 손쉽게 퍼뜨린다. 매체에 담긴 음악이 대중에게 전파될 때는 이미 '대중에게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는가'의 상업적 손익 관계가 최우선이 된다. 여기서 아동기나 청소년기, 학년, 연령에 따른 음악교육적 목표는 그들에게 고려대상이 아니다. 상업성 짙은 음악은 학생들에게 손쉽게 흡수, 모방된다.

학생의 모방은 엄선되거나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매체 음악은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음악에 대한 보편성, 동기, 순수성을 포섭, 잠식시킨다. 〈자료 9〉에서 볼 수 있듯이 매체에서 나오는 음악에 심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양적인 음악개념을 가르쳐야 하는 전담교사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힘들다고 인식한다. 전담교사는 음악수업시작 전부터 흥미를 잃은 상태에 있는 학생들과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렇게 음악수업

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전담교사의 음악적 신념은 학생들과 상호소통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V. 논의

1. 전담교사 배정 및 전문성 발현

III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교과전담교사로 선발되는 과정은 교사가 가진 음악적 능력과는 관계가 멀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10개 내외가 되는 교과를 모두 지도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특성상 모든 교과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반 과목들과 더불어 예술과 같이 기능과 예술적 특수성이 요구되는 과목들을 모두 숙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나 마찬가지이다(Yoon, 2007). 초등학교 교사는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몇 개의 과목에 더 깊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으나 모든 과목에 동등한 관심과 지식을 쏟지 못하며 음악 교과에서는 더하다. 따라서 음악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며, 음악수업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도 어렵다. 교과전담교사라는 직책도 결국은 일반교사에서 이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에서 교사 자질, 수업 기술, 태도와 같은 교수-학습 기술과 수업 가치관으로 현장에서 서서히 드러난다(Hong, 2014). 모든 교과에 전문성을 나타기 어렵다는 윤홍주(Yoon, 2007)와 전문성의 현장성을 강조한 홍인혜(Hong, 2014)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음악전담교사는 음악교과에 최적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풍부하고 긍정적 경험을 가지고 음악교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교사가 개인의 의지와 함께 전담교사로 선택될 때, 그 효과성이 점차적으로 드러나며 학생들과 함께 음악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이미 획득된 능력만을 교실 현장에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해당 음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되어 음악을 완전한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성공적인 음악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교사)의 사회적, 인지적인 기질 자체, 주체의 음악적 노력을 지원해 주는 부모의 헌신, 음악적 자원이거나 기술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활용이 수반되어야 한다(Abeles &

Custodero, 2018, p. 174). 초등학교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선정, 능력의 발현은 교사 개인의 음악경험을 통해 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가르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현하는 음악수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시수나 교사의 상황 등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담교사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배치되면 소중한 음악 교사의 능력은 찾기도, 발휘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으로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열정이 있는 교사가 음악 교과의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과목과 시수들을 담당할 교사들을 구성하는 직전 학기나 학기 초반에 음악교과를 담당할 전담교사의 선정도 같은 심급으로 두고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음악교과전담교사가 근무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음악실의 구비나 악기 및 장비의 지원, 그리고 교과전담교사의 수업구성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 있는 학교측의 태도변경이 요구된다. 둘째로, 교과의 이해도가 높은 음악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음악 교과전담교사의 배정의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음악 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음악교육 전공 교사는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며, 악기의 숙련도나 음악적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교사들보다 나은 단계에 있다. 이러한 교사들이 음악 교과를 전담으로 맡는다면 음악수업의 수준 상승과 동시에 수업 이해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셋째로, 음악교육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음악 교과전담교사의 음악적 배경을 배정 요건에 포함시켜 절차화할 필요성이 있다. 피아노 연주의 가능 유무,²⁰⁾ 기타 악기 연주 가능 유무, 지역 합창단, 합주단의 활동 유무와 기간, 음악의 선호도와 같은 항목을 세분화하면 전담교사 배정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음악교과를 담당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2. 동료 교사 간 문제

두 번째는 음악을 ‘때울 수 있는 과목’으로 보는 일반 교사 인식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 일반에는 초등학교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 지도, 다른 과목의 수업 시수와 진도, 학교 상황의 고려, 교사 간의 상황적 이해관계, 관리자의 기조에 맞는 협력적인 업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된다. 왜냐하면 교사는 행정 업무, 학생 지도 업무, 학부

20) 여기서의 연주 가능 유무는 담당할 학년의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악곡을 말한다.

모 상담 업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정해진 시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업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게 되고 가장 중요시해야 할 수업에 대한 접근도 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억압 아닌 업무의 억압 속에 형성되고 관념화된 편의적인 접근 방식은 교과 자체가 가진 본질적 중요성에서 시수의 할당량, 학부모의 불평, 학생들의 요구, 전체 성적에서의 중요도, 상위 학교 진학 관련성과 같은 교과 본질 이외의 관점으로 이동되고, 달라진 중요도로 판단된 과목들은 준비를 덜 해도 되거나, 쉬운 과목들로 재개념화된다.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한 인식도 이런 형태로 재편된다.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는 교사를 절실히 원해서 교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안정된 직업으로 여겨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일로 삼는 경우도 있다(Kang, 2017). 교사가 음악수업조차 업무의 연장으로 삼을 때 교사라는 직업만이 주는 가르쳐서 앎에 이르게 하는 보람이나 소명의식은 사라지고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음악적 상호작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계에 놓인 전담교사는 소속감을 잃고 조직과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담당하는 음악수업의 존재 이유도 불분명해진다.

음악교과전담교사는 많은 반에 음악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잘 파악하지 못해 수업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²¹⁾ 또한 음악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Lee, 2006, p. 136). 그러나 음악수업이 교실 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되면 학생들은 음악을 함께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며 상호 협력하고, 서로의 음악적 활동을 관찰, 모방하면서 음악적 소통을 생생하게 주고받으며 상호보완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된다(Abeles & Custodero, 2017, p. 144). 문제는 이러한 음악수업의 중요성을 일반 교사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단계로 이행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음악교과전담교사는 물론 일반교사들에게 음악교과가 다른 교과와 갖는 차원이 다른 수업의 의미를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교과에서 대신할 수 없는 음악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음악 본질에 관련된 강좌나 음악교육적 사명에 관한 교육, 음악교육의 인간적, 기능적 효율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²²⁾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관리자 간 문제

관리자의 과도한 음악수업 간섭의 문제는 어느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

21) 연구 참여자인 PSH교사의 경우 두 학년에 여섯 반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12개의 반, 약 250명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 밖에 보지 못한다고 했다.

22) 연수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더 큰 단위인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도 계획할 수 있다.

성을 열고 보아야한다. 간섭의 문제는 관리권과 수업권이라는 두 권리의 충돌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위치와 일선 교사가 가지는 수업권과의 이해관계 절충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 자율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과 정책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들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은 증가한 반면, 교사의 수업 자율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Moon et al., 2018, p. 222). 이 결과는 위계상 상위의 관리자가 일선 수업 현장에서 가르침을 담당하는 전담교사의 특수하면서 중요한 권리인 수업권을 잠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위계상에 놓여있는 교사의 교권이 신장되면서 권리는 중첩되고 갈등을 야기한다. 관리자 간섭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등은 교사의 위치에서 수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적 전개는 교사의 수업 스트레스가 되어 학생에게 온전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음악수업의 권리는 전담교사의 수업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수업에 대한 제안, 권고는 학기 단위나 1년 단위로 폭넓게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4. 교사 학생 간 문제

학생이 전담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는 문제의 본질을 보기위해 먼저 음악수업을 위한 교재와 잡다한 교구들을 들고 매 시간마다 교실을 바꾸어가며 들락날락 거리는 음악교과전담교사를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코티칭을 하면서 담임교사의 눈치를 살피며, 학생들 앞에서 힘겹게 음악수업을 이어가고, 시간마다 바뀌는 반에서 낯설은 학생과 늘 “기싸움”²³⁾을 반복한다. 교과전담교사는 여러 학년을 넘나들며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년에 끼어있는 상태로 지낸다. 다른 과목의 진도를 항상 맞추어서 수업해야 한다. 전담교사를 업신여기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러 엄한 수업을 하여 학생들과 ‘불필요한 거리 두기’ 상태로 있기도 한다. 전담교사는 학생 교육의 향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수업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보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림자’, ‘소외된 교사’,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Kim, 2012). 음악교과전담교사의 현실 모습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비춰지고 학습된 후 교사 계층의 최하위단계로 포섭된다. 그 다음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의 행위로 드러나 어려움이 된다. 학생들의 이런 행위는 오랜 시간동안 타인과의 상황적 맥락을 통해 파악되고 형성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학생들에게 파악된 전담교사의 위치는 다른 교사와의 가시적 관계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의 전담교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수업 상황에서는 음악교과전담교사의 권위 세워주기, 담임교사가 전담교사 수업에 집중하는 분위기 만들기, 코티칭에 적극 협조하기,²⁴⁾ 수

23) “ ”속 단어는 PSH교사와의 3차 면담 과정에서 인용된 단어이다.

업 내용에서 공감 포인트 잡기, 관계적인 면에서는 전담교사의 어려운 일 자처하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찰될 때 행동 수정이 유발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음악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고찰하고 밝혀진 내용을 기초로 논의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은 두 학교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와 나눈 심층면담을 주자료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 간에 발생하는 관계적 문제들이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한 편견을 양산하고 전담교사의 수업을 어렵게 하였다.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들과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라는 조직에서 관리자의 지시, 교사의 개인 사정, 교사 간 이해관계, 학교 상황들은 교사가 교과전담으로 배치되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음악실과 같은 특별실 구비, 악기 장비의 지원, 교과전담교사의 수업구성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 있는 학교측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교과의 이해도가 높은 음악교육 전공 교사가 교과전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음악전공 교사의 경우, 이전 음악적 배경이 배정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음악 선호도, 피아노 반주 및 다른 악기 연주 가능 유무, 뮤지컬이나, 합주, 합창 지도와 같은 종합적인 음악 프로그램의 소화, 지역 연주 단체 활동 등 교사 개인에 대한 음악적 경력 요소들이 교과전담교사 선정과 배정 조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일반 교사와 음악교과전담교사 간 생기는 편견 문제는 우선적으로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수업이 타 과목에서 담당할 수 없는 특수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음악교육의 본질 관련 강의, 음악교육적 사명과 학습자 간의 연관성, 음악교육의 인간적, 기능적 효율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교사교육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전담교사와 관리자 간 발생하는 권리 충돌 문제는 교과전담교사의 온전한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수업 관여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음악교과전담교사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의 주체들이 음악교과전

24) 음악교과에서도 코티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담교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첫째, 교실 상황에서 전담 교사의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둘째, 코티칭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관계적 대안으로 담임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먼저 파악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음악교과전담교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행위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어려움은 작은 실천과 개선으로 변화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 나은 음악수업을 위하여 학교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beles, H. F., & Custodero, L. A.(2017). *Critical issues in music education contemporary theory and practice*. Trans Kim, Y. H., Chung, J. W., Oh, J. H., Lee, S. J., Park, Y. J., Shin, J. H., & Jung, J. Y. Paju: Eumaksekye.
- Bae, S. A. (2011). *In-depth interview technique in portrait method: "Exploring the process of dropping out and returning to high school students in the US" as an example*.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 Choi, J. K. (2020).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praxis in David Elliott's praxial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3), 099-123.
- Choi, M. J. (2005). *A survey of teachers' recognition on the full-time music teacher system: Focused on Ulsan's elementary school*. Keimyung University.
- Creswell, J. W. (2017).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Seoul: Sigmapress.
- Hamlyn, D. W. (1978). *Experience and the growth of understanding*. Trans Lee, H. W. (2010). Paju: Kyoyookbook.
- Hong, I. H. (2014). Construction of music teacher professionalism scale and analysis of the recognition leve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4), 239-267.

- Hong, Y. H. (1988).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 Jo, Y. H. (2008).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qualitative research*.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 _____ (2016).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cases*. Seoul: Kyoyookbook.
- _____ (2019). *Summer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Jun, Y. C. (2017). Comparative review study between interview and in-depth interview for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5(1), 147-168.
- Jun, Y. C., Bae, S. A., & Lee, H. J. (2013). Exploration on in-depth interview adopted in the essentialist portraiture methodology: Focusing on participant as ally relationship and interviewing for feelings. *Anthropology of Education*, 16(3), 1-29.
- Kang, J. A. (2017). *A qualitative study on lived experienced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training: Regarding teacher autonomy*.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ang, K. S., & Jung, W. Y. (2006).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 among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teacher efficacy, and school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3(1), 397-419.
- Kim, H. G. (2012).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lives of the subject specialized teachers at an elementary school*. Master thesis, Kyunghee University.
- Kim, M. J. (2008).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designated music teacher system in the elementary school*.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_____ (2001). *The effectiveness of the music departmental system in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 Kim, M. S. (2018). A direction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based on the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4), 1-20.
- _____ (2019). A study on the competency enhancement of music teacher.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25-48.

- Kwon, S., & Kim, H. J. (2017). A study of the operation of elementary school music instructors in charg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1-9.
- Lee, J. A. (2006). Teacher's professional lives of the temporary music subject-dedicated teachers in the elementary school in Incheon and Gyeonggi a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0, 123-147.
- Lee, K. E. (2017, February). *Current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subject specialized teachers at an elementary school*. Monthly education, 72-78.
- Lee, K. S. (2015). *For the music teacher*. Seoul: Yesol.
- _____. (2010). Diverse approaches to recording and managing fieldwork data.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8(1), 97-126.
- Lim, E. J. (2019). [The Recent Issues in Music Education] 2018-2019 Colloquium & workshop.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115-116.
- Meyer, L. B. (1991). *Emotion and meaning in music*. Trans Shin, D. W. Seoul: Yesol.
- Yun, G. K. (2018).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children's song for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aracter and moral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4), 107-128.
- Min, S. E., Kim, Y. C., & Jung, J. H. (2015). A study on the effective analysis method of life history research. *Teacher Education Research*, 54(4), 621-638.
- Ministry of Education (2013).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teacher placement standards*.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8).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No.21215
- Moon, C. J., Yang, C. J., Na, Y. J., Kim, J. E., Nam, I. H., & Jeong, D. W. (2018). Analysis on the effects of teacher autonomy on enhanc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5), 219-245.

- Park, S. I., Jeong, D. C., & Lee, I. S. (1993).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for exclusive charge system in elementary school courses. *Thesis Collection*, 28, 163-183.
- Reimer, B. (2017).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Trans, Choi, E. S., Kwak, D. J., & Kim, K. H. Paju: Kyoyookbook.
- Rim, M. K. (2003). Development of the music education program for the elementary music teacher training.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11(2), 231-261.
- Saldaña, J. (2012).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Trans Park, J. W., & Oh, Y. R. Seoul: Sjbook.
- Seidman, I. (201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Trans Park, H. J., & Lee, S. Y. Seoul: Hakjisa.
- Song, M. S. (2007). *A study on the process of the peer-culture formation of the upp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Master thesis, Inha University.
- Vygotsky, L. (1986). *Thought and language*. Trans Yoon, C. H. (2011). Seoul: Kyoyookbook.
- Yun, H. J. (2017).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dedicated elementary school subjects*. paper presented at 2007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Conference, 3, 17-47.